

● 한우협회, 한우 숯불구이 축제 ●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참가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표선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제11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과 함께하는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개최했다. 제주 시민과 세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열어 이번 축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를 위해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는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마련, 300여 명이 동시에 한우 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숯불구이존을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입해 즉석에서 숯불과 함께 한우의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었으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한우자조금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우 푸드트럭을 운영해 한우 시식 이벤트를 여는 한편 룰렛 이벤트 등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이뿐 아니라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열리는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한우 홍보존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우를 판매했다.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우 푸드트럭을 이용해 한우 시식회를 열고, 우리 한우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국내를 비롯한 한국을 방문한 세계 문화예술인들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렸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적 문화행사에 참여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한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우자조금, 2018 한우공감캠핑 ●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보보스카트 캠핑장서 한우공감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 신청자 총 70팀을 모집했다.

이번 캠핑은 가족과 한우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2박 3일 동안 진행됐다. 한우 푸드트럭 시식회를 비롯해 한우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체험, 한우 캠핑 요리 대회, 숲 속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2박 3일간 열렸다. 특히 6월 24일에는 가족과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와의 경기를 응원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해 캠핑 참가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참가 가족에게는 캠핑 사이트를 제공하며, 5만원 상당 한우 불고기와 특산품 등이 함께 제공됐다.

● 한돈협회, 정P&C연구소와
● 종축등록 업무 자문기관 협약



대한한돈협회가 본격적인 종축등록(돼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P&C연구소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한돈협회 사무실에서 종축등록(돼지) 업무 자문기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 지정 종축등록기관으로 농식품부의 법적 조건을 완벽히 하고 1년간의 현장 점검 및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지난 4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혈통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P&C 연구소는 한돈협회의 종축등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 및 개량사업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외국과 달리 그간 국내 종돈개량은 종돈장(GGP) 중심의 개량목표 설정으로 일반 양돈장(PS)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 개량속도가 부진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국내 한돈농가를 대표하는 한돈협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과 같이 실제 PS농장 성적 중심의 국내 종돈개량 체계 마련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하 회장은 “이번 종축등록 기관 운영과 함께 한돈협회가 운영하는 한돈팜스(전국 한돈 전산 프로그램) 활용하여 공급된 종돈의 발현성적을 종돈장에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돈자조금, 한돈몰 할인기획전
● 한돈 야식상품 20% 저렴하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러시아 월드컵 개최와 가족 단위 나들이가 증가하는 6월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인 한돈몰에서 꾸민 할인 기획전을 실시했다. 먼저 러시아 월드컵을 기념해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국가대표 한돈 야식 빅매치 기획전을 진행했다. 한돈몰 가공육 코너에 있는 돈가스, 햄, 소시지, 육포 등의 야식 품목을 20% 할인 판매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한돈몰 가공육 기획제품 중 2가지 이상 구입한 소비자들 중 2만원 미만 구입 시에는 축구공 비치볼을, 2만원 이상 구입 시에는 보냉백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또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을 위해 7월 13일까지 4주간 한돈 구이용 기획세트를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한돈 피크닉 기획상품은 캠핑용 인기상품인 삼겹살과 등갈비 세트, 삼겹구이 세트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였다. 한돈자조금 측은 “시즌별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춘 할인 기획전을 진행함으로써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할인 혜택과 무료배송, 사은품 증정 등 매일 진행되는 통 큰 기획전을 추진하여 믿을 수 있는 한돈을 저렴하고 알찬 혜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육우자조금, 2018 육우사랑 •육우데이 페스티벌 성료

국내산 육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육우데이 행사가 열렸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2018 육우사랑 육우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육우데이는 육우에 대한 올바른 대중 인식 확립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만든 날로 숫자 6과 9가 육우와 발음이 유사해 6월 9일로 정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양창범 원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숙 부회장, 축산기업중앙회 한수현 이사, 농협중앙회 정상태 축산지원부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육우자조금은 개막식에서 심오뜸 트레이너를 육우자조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된 육우를 이용한 요리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으며, 2018년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팀에게 축구용품을 전달했다.

또한 내빈들이 시민들에게 육우로 만든 음식을 직접 배식해주는 시간과 육우탐블러·액자·달력 만들기, 육우요리전시회, 육우랑 비눗방울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대안 위원장은 “국내 육우산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한우와 수입육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며 국내산 쇠고기 산업을 지키는 첨병의 위치에 있다”면서 “육우가 건강한 먹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육우산업 지원”을 요구했다.

•우유자조금, 국산원유 우수성 홍보 •온라인 우유 요리대회 개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 온라인 우유 요리대회를 진행했다.

본 대회는 소비자와 함께 소통하여 건강한 우리 흰 우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가고자 개최됐다. 국산원유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대회 주제는 우유가 돋보이는 한 그릇 요리로, 우유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창의적이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우유 요리 레시피를 선보이면 되는 대회다. 6월 30일까지 응모 가능했으며, 우유자조금 홈페이지에 요리 사진과 만드는 법을 게재해 신청했다.

예선 심사에서는 건강성, 창의성, 실용성, 맛과 담음새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세심한 평가가 진행된다. 예선 결과 발표는 7월 6일에 확인할 수 있다.

● 양계협회, 제2차이사회
● 전수검사 피해발생 최소화

양계협회는 대전 라온컨벤션 호텔에서 2018 년 제 2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의 화두는 단연 계란 안전성 관련 사항 들이었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계란 전수검사 결과 살충제 잔류물질이 검출 된 농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는 그간 계란 전수검사와 관련해 환경오염 도가 높게 조사된 농가의 도태 독려, 도지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별 간담회 개최, 지역 순회교육 개최, 친환경 인증서 반납운동 추진, 희망농가 대상 자체검사 추진, 잔류물질 제거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추진해 농가에게 계란 전수검사와 관련해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노력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 밖에도 이번 이사회서는 2018 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고병원성 A 관련 추진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상반기 신란계농가 교육계획(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항, 2018 전국양계인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지나해부터 특히나 신란계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라며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사슴협회, 우수사슴 선발대회
● 참가신청 진행

사슴협회가 우수사슴 선발대회에 참가할 사슴을 모집했다.

한국사슴협회는 6월 말까지 2018년 제26회 우수 사슴 선발대회의 참가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4세 이상의 엘크 및 꽃사슴으로써, 엘크의 경우 각관 분지 5cm 이내의 17kg 이상과 14kg 이상 녹용이 기준이다.

각 지회의 회원 중 가장 우수한 녹용을 심사해 1두 이상 출품하되, 17kg 이상과 14kg 이상으로 구분해 그 중 한 개만 출품한다.

시상식은 내달 12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대회당일 심사를 통해 엘크 대상(농식품부장관상), 종합평점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종량·각관 길이·녹용외관·상대비율·꽃사슴 부문 최우수상(농협중앙회장상), 우수상 등을 시상할 방침이다.

사슴협회 관계자는 “종합평점 1·2위 수상사슴의 경우 우수사슴 선발대회 수상인증서를 발급한다”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